김포마루+

2021 06
MONTHLY MAGAZINE vol.220

발행인 김포시장 **발행처**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주소** 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구독문의** 031-980-2066 **김포시와 함께하는 세상읽기** **김포시 뉴스포털(김포마루)** gimpo.go.kr/u/681
김포마루웹진 김포가 좋다 m.post.naver.com/gimpo2010 **뉴스레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메일 발송 **우편 구독신청(무료)** **전화** 031-980-2066 **팩스** 031-980-2059 **홈페이지** gimpo.go.kr
소통하는 도시, 김포 SNS **페이스북** facebook.com/gimpocity.kr **블로그** blog.gimpo.go.kr **트위터** twitter.com/gimpomaru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impocity

오늘도 우리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

글 편집실(K)

“우리는 다음 세대에 미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01

4월 22일 국가광역철도 공청회에서 GTX-D는 김부선으로, 5호선 연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GTX와 5호선 연장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공사가 완료된다 해도 십수 년 뒤의 얘기라 그것을 타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때쯤엔 대학생이 되었을 테니 지금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도 아빠와 같이 지옥철에 시달리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안전을 위협받으며 골드라인을 타고 통학에 파김치가 되어 온 딸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뭐라도 해볼걸’이라는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첫 모임 때 7살 아들을 데리고 나온 주부도 있었고, 세 딸의 아빠도 있었고, 서울로 출퇴근이 너무 고되어 아이는 생각도 못 하는 젊은 새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엄마, 아빠, 아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운영위원,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단톡방 관리, 카페 게시판 관리, 행사기획, 법률 협의 등을 하고 있고 한 아이의 아빠인 저도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위원장 출범 연설문 중에서 -

“김포시민의 안전은 정녕 괜찮은 걸까요?”

02

풍무역 기준 두 대의 차량을 보내고서야 겨우 몸을 구겨 넣어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고, 탑승한 후에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착되어 호흡곤란까지 느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차량 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결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호흡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만약 지금 승객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2차, 3차 감염을 불러올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김포시민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좁아터진 골드라인 안에서 김포시민의 안전은 정녕 괜찮은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 ‘GTX-D 노선 김포 검단 부천 강남 강동 하남노선 및 5호선 김포 검단 연장노선 6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중에서 -

G T X - D 원 안 사 수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또 거부되지 않기를”

03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김포~부천종합운동장으로 대폭 축소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 당시 타당성, 지방과의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을 이유로 김포시와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2019년 10월 광역교통비전2030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서울 5호선 김포연장도 삭제했습니다.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토부의 잣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확인된 김포시민의 요구를 일체의 가감 없이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토부가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이라는 법적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포시는 GTX-D 원안사수,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하며 김포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입니다.

만약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50만 김포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직접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 GTX-D 원안사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촉구 기자회견문 중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25만 명 돌파,

확정고시 전 경기도에 전달

지난 4월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29일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및 시행계획 공청회에서 GTX-D는 당초 경기도가 요구했던 김포에서 서울로 직결되는 안이 아닌 김포~부천행으로 노선이 축소되어 발표되었고, 서울 5호선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공청회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타당성과 지방과의 투자 균형, 기존노선 영향을 이유로 김포시와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김포시는 범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청 본청과 14개 읍·면·동 청사, 육교마다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의 의지를 알리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김포시는 GTX-D 원안사수·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18일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5월 25일 오후 기준 온라인 103,629명, 오프라인 149,497명 등 총 253,126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포시는 계획 확정 고시 전 법률에 정해진 시도지사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 시민 서명과 그동안의 의견을 모아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ISSUE 1

김포 신안리서 신석기 마을 유적 확인

중서부 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상 파악

대곶면 신안리 212-1번지 일원 '신안리 신석기유적 발굴조사'에서 경기도 및 한강서부지역 내 면적 대비 최대 마을 유적이 확인됐다. 2019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총 23기의 수혈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갈돌·갈판과 같은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구와 유물이 확인됐다. 발굴 유물 분석 결과 신석기 전기~중기(B.C 3,700~3,400)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서부 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확인됐다. 김포시에서는 추가 발굴조사 등을 완료한 이후 유적공원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과 980-2484

ISSUE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연중 추진

김포시는 작년에 이어 연중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경찰서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난 5월부터 김포경찰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등기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포시 교통과에서는 "김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통과 980-2466

ISSUE 3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실시

김포시는 12월까지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냉동·신선식품 운반에 사용된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모아 배출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고촌읍, 양촌읍 포함)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소독→건조→포장 등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신선식품 제조업체 및 대명항 어판장 등 필요한 수요처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은 비닐 포장된 젤 유형의 깨끗한 제품이다. 부직포 포장이나 파손·오염된 아이스팩은 기존대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물 타입 아이스팩은 물과 비닐을 분리해 비닐만 분리배출 하면 된다.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운영을 거쳐 성과에 따라 아이스팩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순환과 980-2776

단 신 뉴 스

'고당e공부방' 온라인 교육 사이트 개설

김포시보건소에서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질환, 영양, 운동 등 다양한 교육 영상을 제공한다.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해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에 관심 있었던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검색창에 '고당e공부방' 검색 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이트에 바로 연결되어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보건사업과 980-5851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간** : 5. 31.(월)~6. 30.(수)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장소** :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팩스(980-2139),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단, 우편은 6. 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 토지정보과 980-2151, 2154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6. 16.(수) ~ 6. 30.(수)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가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은행, 가상계좌, ARS카드, 인터넷, 스마트폰, 지방세입 계좌납부
- **문의** :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자동차세 담당자 980-2032, 2034

ISSUE 4

김포시 평생교육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개최

김포시는 지역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대표 평생교육 명칭 선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2021년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시로 전면 전환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2개 분야다. 네이밍은 김포시의 평생교육 정체성과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참신한 출품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네이밍 공모는 6월 13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모전 신청서를 내려받아 명칭과 명칭에 대한 의미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동일한 네이밍이 2건 이상인 경우 제출 순서가 빠른 응모작이 우선 권한을 갖는다. 접수된 작품은 시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 3단계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00만 원) 각 1명 △우수상(50만 원) 각 1명 △장려상(20만 원) 각 3명 △입선(5만 원) 각 5명 △아이디어상(1만 원) 각 15명에게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나 평생학습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청소년과 980-5144

ISSUE 5

"소외 이웃 알려주세요" '김포복지팡팡' 채널 개설

김포시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채널을 개설했다.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어 도움을 주고 싶거나 혹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1 채팅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내가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지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는 마을의 복지 홍보 등도 제공된다. 가입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김포복지팡팡'을 입력 후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김포시민 누구든지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김포시 콜센터 980-211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ISSUE 6

김포시 배수펌프장 점검 및 시험가동 실시

김포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 등 대형 풍수해 사전대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배수펌프장 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가동에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전기안전관리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 배수펌프 및 수배전반 업체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시험가동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 15.~10. 15.)에 따라 배수펌프장 설비의 정상 가동상태 점검과 근무자 운영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특고압 수전에 대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배수펌프·수문·제진기 등 방재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총괄과 980-2602

단 신 뉴 스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개선' 참여업소 추가모집

김포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한다.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입식테이블 설치비 또는 주방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노후 및 오염된 후드·덕트, 환풍기 등 주방 환기 시설을 청소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까지이며 희망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기타 서류 작성 후 김포시 식품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식품위생과 980-2238

양곡도서관 시민 북큐레이터 모집

시민이 직접 주제 도서를 선정하는 시민 북큐레이션 '시민의 서가'를 운영 중인 양곡도서관에서 7월 도서 전시에 참여할 시민 북큐레이터를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북큐레이터란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여 독자에게 책의 가치를 안내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진로'를 주제로 청소년과 시민 북큐레이터를 선발해 도서를 전시해 온 양곡도서관은 7월부터 9월까지 '역사로 오늘을 살다'라는 주제로 북큐레이션에 참여할 시민 북큐레이터를 매월 2명씩(청소년, 성인 각 1명) 선발할 예정이다.

양곡도서관 5186-4833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공사 기공식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이 지난 5월 4일 사업부지에서 열렸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에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등 112만 1천㎡ 규모로 총 사업비 1조 2,74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3만 7,526명의 일자리 창출과 7조 8,95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조 6,03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도시관리과 5186-4127, **김포도시관리공사** 980-8571

ISSUE 1

국토부·대광위 찾아 김포 철도망 구축 반영 촉구

"GTX-D 원안 건설·김포한강선 김포연장,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

김포시의회가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원안 건설과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 새벽 세종특별시로 이동한 시의회 일행은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GTX-D 김포-강남직결 원안대로! 김포한강선 김포연장!'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발표에 대한 서부수도권 시민의 실망감과 광역철도망 구축의 절실함을 전했다.

이어 국토부와 대광위를 찾아 김포~하남 노선이 일명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전락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강남 직결노선과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호소문에서 김포, 하남을 잇는 경기도 제안 GTX-D노선의 B/C(비용대비 편익)값이 1.02로 우수하게 나왔음에도 김포~부천선으로 축소된 점과 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 언급조차 없는 것은 정치적인 지역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보이는 김포시민은 출퇴근 혼잡률 285%에 달하는 김포도시철도에 의존해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다며 6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는 반영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의회는 세종시에서 김포시민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뒤, 대광위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예정된 서울 용산의 KDB타워로 자리를 옮겨 김포 광역철도망 구축 당위성을 설명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ISSUE 2

제209회 임시회 마무리

김포시의회가 4월 30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종우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진 안건표결에서 김종혁·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이 원안으로, 3개의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수립 동의안' 등 기타안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진)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 4,242억 3,113만 5,000원(기정예산 대비 1,276억 7,450만 2,000원 증액) 중 1억 6,48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관광진흥과 소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운영사업비 5,000만 원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식 및 기념행사 사업비 5,000만 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온·오프라인 홍보비 3,980만 원 △국제조각공원 피크닉 콘서트 사업비 2,500만 원 총 4건이다.

단 신 뉴 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김포시의회가 지난 4월 15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올해 세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한종우 의원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김포시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제시

김포시의회가 지난 5월 20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올해 네번째 정책토론회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배강민 의원과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최영 투미코리아(주) 대표 등이 참석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했다.

행정사무감사·결산안 심화교육

김포시의회가 6월 개회되는 제210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심의 심화교육을 김포아트빌리지에서 5월 18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재정 결산분석,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INTERVIEW - **오강현** 시의원

“GTX-D 원안 사수, 지하철 5호선 연장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김포시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시의원이 있다. 오강현 시의원이다. 김포시의회 교통문제 연구모임 대표인 오 의원은 최근 정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GTX-D 원안 및 지하철 5호선 연장 반영을 위해 여념이 없다.

글 편집실(J)

매일 지옥철 경험… 시민 고통 가중

“GTX-D 원안 사수·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5월 중순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만난 오강현(더불어민주당, 고촌읍·사우·풍무동) 의원은 “GTX-D 원안·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GTX-D 원안 사수·지하철 5호선 연장 서명에 동참해 달라’는 홍보물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뜻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시민들은 오 의원에게 “시민을 대신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음료수를 건네기도 했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의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출근길 혼잡률이 무려 285%에 달한다”며 “보시다시피 시민들이 서울 출근을 위해 2량 1편성으로 된 지옥철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는 2020년 인구유입률이 전국 지자체 중 1~2위”라며 “지금도 매달 수천 명씩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GTX-D 원안 반영·조기 추진 절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산대교,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으로 오랜 시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포시는 2기 신도시 대표도시로 조성됐지만, 국비 지원을 받은 1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신도시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분담금 1조 2,000억 원을 납부해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자 원천 부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등 국비 지원이나 교통정책 수립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오강현 의원은 또 “10년 동안 교통 수혜는커녕 하루하루 교통 불편을 감내하는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서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신설’,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안대로 반영되고 조기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강현 의원은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6월 말 확정된다”며 “시 집행부 역시 시민 및 시의회와 함께 우리의 희망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체 힘 모아 교통문제 해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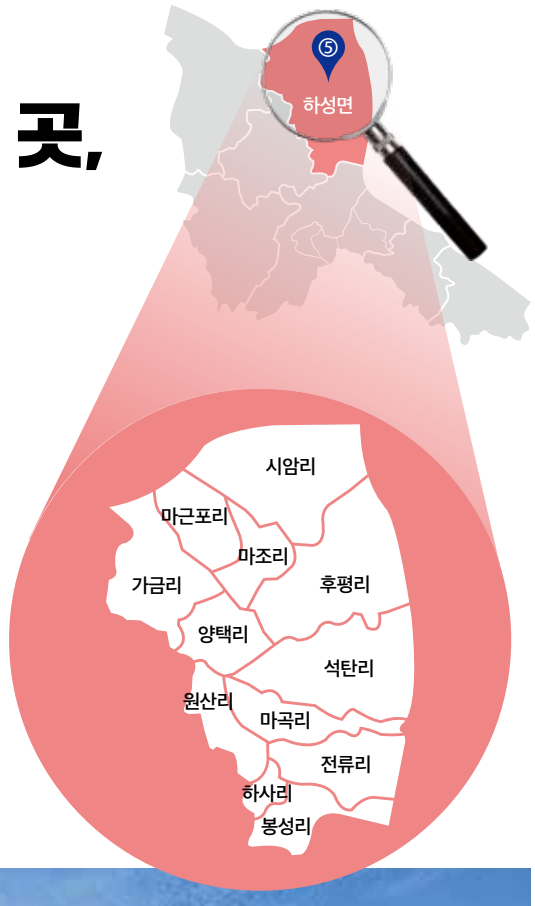
“50만 김포시민께 호소한다”며 “무엇을 하든 분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은 필패(必敗)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열이 아닌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미래와 후손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김포시를 물려줄 수 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 교통문제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오 의원은 박우식·김옥균·최명진 의원과 함께 인구 76만 시대를 맞이하는 관내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하반기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집행기관 교통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전문가 초청 세미나, 워크숍 등을 열어 연구 성과를 완성해 집행기관에 교통정책 개선점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성면 황금들녘

철책과 자연이 화합의 노래를 부르는 곳,



하성면 霞城面

한강을 두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기름진 평야,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지켜진 청정 지역… 김포 최북단에 자리한 하성면을 일컫는 표현들이다. 현재 하성면에는 마곡(麻谷), 석탄(石灘), 후평(後坪), 시암(柿岩), 마조(麻造), 가금(佳金), 양택(楊澤), 원산(元山), 하사(霞沙), 봉성(奉城), 전류(顚流), 마근포(麻近浦)리 등 12개의 법정리가 있고, 면적은 김포 관내에서 가장 넓지만(54.83㎢) 인구는 1만이 채 되지 않는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따라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이들의 고향, 하성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여다본다.

글 이유경 시민기자

하성에서 바라본 북녘땅

금색 물결 찬란했던 들녘

하성면도 김포의 여느 곳과 다름없이 논농사가 주를 이룬 곳이다. 봉성산, 연화산, 동성산, 태산 인근으로 포도밭, 배밭도 꽤 있었지만 후평리, 석탄리, 시암리, 하사리 일대는 드넓은 평야를 자랑했다. 수확을 앞둔 가을날, 문수산에 올라 내려다본 후평리 평야는 말 그대로 황금색 물결이 넘실대는 장관을 이루었다.

지금이야 항공방제에 기계가 다 하는 시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 손이 귀했다. 일손이 부족해서 일찍 모내기를 마친 아랫녘 사람들이 이곳까지 올라와서 품을 팔았다. 동네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놓자마자 농사일을 거들었다. 제초제를 뿌릴 때면 친구들과 순번을 정해 서로 돕고, 인삼밭이 많아 삼포이엉을 엮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다. 새참 나르는 길에 따라나섰다 논바닥에 미끄러져 그릇을 엎기도 했다. 농사가 끝나면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 내다 팔았는데, 노끈이 없던 시절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 아이들의 학비를 담당할 정도였다.

농사일로 바빴으나 아이들은 어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며 산소 앞 잔디밭에서 솔방울을 차고 놀거나 수로, 보에서 물놀이를 했다. 하천에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양은솥 하나 얹어 국수를 넣고 친구들과 추어탕을 끓여 먹고, 싱아나 송진 같은 것을 따 먹기도 했다.

밤하늘 별이 쏟아졌던 이 농촌마을도 이제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포도밭은 물론이고 논까지 매립하여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논 한가운데 창고가 생겨나기도 했다. “어린 시절 금색 물결이 일던 평야가 빨갛고 파란 공장 지붕들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는 하성 출신 시민의 이야기가 안타깝기만 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삶

하성면에는 전쟁이 끝나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다. 한강을 두고 북한과 가깝다 보니 ‘누구네가 월북을 했다더라’, ‘어느 집이 알고 보니 간첩이라더라’, ‘빨대를 물고 한강을 잠수해서 간첩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시계 알람이 아닌 대북·대남 선전 방송에 잠에서 깼고, 텔레비전에서는 북한 방송이 심심찮게 나왔다. 북한에서 수해가 났을 때는 살림살이에 돼지까지 떠내려 오기도 했다.

한강하구에 유일하게 남은 포구인 전류리 포구는 지금까지도 자유로운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웅어를 비롯해 실뱀장어, 송어, 새우, 참게가 많이 잡히는 곳이지만 군부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신고된 사람만이 어업을 할 수 있다. 월북의 위험이 있다 하여 최근까지도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닌 목선을 띄웠다. 지난 2019년에는 '김포시민의 날'을 맞아 한강물길열기 행사가 이곳 전류리 포구에서 열리기도 했다.

하성면에는 민통선이 있다. 같은 하성면 사람이라 해도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없기에 농번기에는 군인들이 일손을 도왔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떡을 해서 부대에 돌리기도 했다. 북한과 인접하다 보니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다. 그래서 면민들 간에는 작은 일에도 서로 힘을 보태고 화합하고 협동했다. 인구도 많지 않은 조용한 마을이지만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면 선수를 차출하고 응원단을 조직하고, 부녀회에서는 음식을 만들었다. 줄다리기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승부에서 하성면은 강세를 보였다.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전국토의 공원화'라는 슬로건 아래 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 하성면민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다.

규제와 제약을 넘어 살기 좋은 마을로

하성면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성초와 금성초가 있고 대부분이 하성중-하성고로 진학했다. 하성고등학교는 김포 안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데 최근에도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인심 넉넉한 마을에 걸출한 인물도 많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충절을 지킨 여흥 민씨 집안을 비롯해 조선의 다부(茶父)로 추앙받는 이목(1471~1498, 가금리)과 명나라 황제까지 효성으로 감동시킨 김호신(1543~1617, 시암리)이 있다. 현대로 내려오면 석탄리 출신 권이혁 장관(1923~2020)은 환경부·보사부(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서울대 총장과 병원장을 역임했다. 안보가 중요한 곳에서 성장한 탓에 장성 출신도 배출했고 정계·학계·법조계로도 많은 이들이 진출했다.

산 좋고 물 좋은 인심 넉넉한 마을이지만 지리적·환경적으로 각종 제약에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군사시설보호지역, 환경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재산권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발전을 어렵게 했고, 보존과 개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부터 진행된 하성 작은도서관이 올해 3월 개관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시설을 비롯해 청소년 공부방, 마곡1리 경로당 및 주민회의실의 공간도 마련되어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성면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성산 둘레길 및 원산 약수터 가꾸기 사업도 진행되어 산책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약수터 정비 및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재정비가 완료된 태산패밀리파크는 주말과 공휴일에 숲속 체험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발딛을 틈이 없다. 하성은 이렇게 김포를 대표하는 워라밸 관광지이자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는 중이다.

1

1.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시절, 동네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논으로 나가 일을 거들었다.
2. 하성면 작은도서관

●
하성작은도서관
주소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68-13
운영 평일 10:00~18:00
문의 5186-4889

* 다음호에는 고촌읍을 소개합니다.

하성의 생태, 문화, 역사를 만나는 김포평화누리길 3코스

김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하성면은 여기저기 찾아갈 곳이 많다.

가금리에는 평양감사와 기생 애기의 이야기가 담긴 애기봉이 있다. 애기봉 정상에는 통일전망대가 있어 북녘땅과 주민들을 바라 볼 수 있다. 양택리 태산에 위치한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이외에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가톨릭문화원, 전류리 포구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요리까지 곳곳이 발길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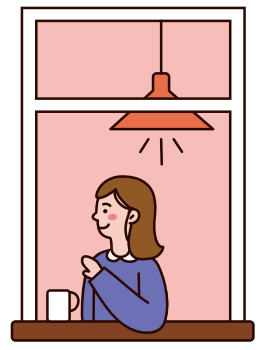
이 가운데 하성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하성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곳이 '평화누리길'이다. 김포평화누리길 3코스는 바로 애기봉전망대에서 시작해 마근포리, 후평리, 석탄리를 거쳐 전류리 포구로 이어진다. 마근포는 과거 북한 개풍군을 오가는 길손들이 쉬었다가는 주막이 있던 곳인데 전쟁 이후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지금은 철조망과 논만 남아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후평리와 석탄리의 넓은 평야와 철새가 줄지어 하늘을 날아가는 장관을 보며 자연스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된다. 전류리에서는 철 따라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산과 강, 새와 평야 그리고 북녘을 볼 수 있고 맛집까지 자리 잡은 이 길에는 많은 도보여행자와 라이더가 찾아오고 있다.

평화롭고 한적한 길을 가다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나오기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한다. 또 길을 나서면 눈앞에 넓은 평야와 한강을 마주하게 된다. 후평리 철새(재두리미) 도래지에 들어서면 재두루미 동상을 만나고, 그러다 문득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이 눈에 들어온다.

분단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더 잘 보존된 생태의 보고, 그리고 한강을 따라 흘러온 우리네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김포평화누리길'이다.

철새들의 낙원인 하성면 후평리

‘슬기로운 바깥 생활 Best 5’



**신록이 녹음으로 이어지는 유월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
그렇다고 청록의 유월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일. 이번 김포마루에서는 가족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슬기롭게 바깥 생활할 수 있는 Best 5 장소를 소개한다.**

글 양미희 시민기자

베네치아를 닮은 **‘라베니체 야경’**

야경을 논하자면 라베니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조성된 라베니체 야경은 사계절 내내 사진작가들의 화두에 오르는데 특히 여름을 시작하는 유월부터 만인의 사랑을 오롯이 받는 곳이다. 물줄기 따라 달리는 문-보트의 즐거움은 초여름을 여과 없이 즐기기 충분하다. 라베니체 곳곳에 자리한 조형물과 포토존은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라베니체 야경이 절정이 되는 순간이다. 코로나19로 여행 자체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포 라베니체를 찾는다면 그 어느 유럽여행의 설렘을 충족시키기 충분하다.

위치 : 장기동 2028 (금빛수로 일대)

평화를 노래하는 **‘후평리 철책길’**

평화누리길 3코스 끄트머리에 있는 후평리는 김포의 대표적인 평야로 유월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산뜻하다. 이곳은 차량 왕래가 드물어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며 지형과 풍광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에 티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곳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로지르는 뿌연 빛의 띠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은하로 불리는 미리내다. 후평리에서 전류리까지 이어지는 한강하구의 철책은 조만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분단의 역사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닌 철책이 가진 역사적 아픔을 평화로 감싸겠다는 것으로 유월을 함께한다.

위치 : 하성면 금포로 1928 (전류리포구에서 약 4km)

아라뱃길과 이어지는 생태의 보고 **‘전호습지’**

육지가 바다에 길게 돌출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반도라 한다. 김포도 반도다. 그 덕에 다른 지자체에서 흔하지 않은 습지를 접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전호습지다.

전호습지는 오래전 철책으로 막혀 있어 드나들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4월 철책이 제거돼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인 전호습지는 다양한 사주와 습지, 그리고 습지에 적응해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로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위치 : 고촌읍 신곡리 191-26 (전호야구장 왕복 2km)

걷기 좋은 길 **‘가마지천’**

가마지천의 발원지는 마산동 김포생활체육관 길 건너 은샘공원이다. 이곳에서 출발한 가마지천은 호수공원을 지나 양촌읍 양곡리까지 3.9km 구간으로 봉선천과 만난 후 한강과 합류하는 우리 하천 중 하나다.

가마지천의 유월은 한마디로 ‘금계국 하다’이다. 금계국은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작은 발원지인 은샘공원부터다. 이곳에서 뜨문뜨문 눈에 들던 금계국은 호수공원 쯤에 들어서면 장관을 이룬다.

금계국의 꽃말은 ‘상쾌한 기분’인데 이에 반박할 여지가 없이 바라만 봐도 상쾌한 기분이 절로 든다. 야생화로 알려진 금계국은 선황색의 꽃색도 아름답고 키도 충분하기 때문에 플로리스트들은 화재로 이것들을 채취해 장식에 사용하기도 한다.

위치 : 김포한강8로 302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수런거리는 수국 **‘군하숲길’**

유월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군하숲길에는 수국이 한창이다. 군하숲길은 지난 2020년 1월 조성됐다. 월곶생활문화센터 시작하는 군하숲길은 총 0.35km로 진입부에 아름드리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나무는 김포시가 지정한 보호수다.

이어진 데크로드 그리고 자작나무 숲길 따라 수국 2천여 송이와 맞닥뜨리게 된다. 2천여 송이의 수국과 환상의 시간을 보냈다면 김포국제조각공원과 문수산도 추천한다. 단, 약간의 여유 시간과 체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하숲길과 이웃하고 있는 통진이청, 통진향교, 군하리 문화마을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보는 것 또한 의미 있다.

위치 : 월곶면 군하로276번길 20

아픈 역사 안고 '평화'로 나아가다

6.25 전쟁 71주년 김포의 미래

平和

오는 25일, 6.25 전쟁 71주년을 맞는다.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전쟁의 흔적, 걷어내지 못한 철책선이 여전히 김포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정전협정 68년이 지났지만 조강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김포의 6.25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김포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글 황인문 시민기자

격전지 김포, 6.25 전쟁 전개 과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38도선 부근에서 종종 발생했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인민군의 전면적인 공격이었다. 김포는 한강과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데다 38선과 서울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6.25 전쟁 기간 김포지역에서는 크게 세 번의 큰 충돌이 있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 이른바 '김포반도 지연전'이 벌어졌다. 비록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지만 북한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전투였다. 3개월 후 김포는 또다시 격전지가 되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됐다. 한·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부평과 김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9월 22일 결국 김포 전역을 탈환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10월 15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다시 뒤집혔다. 해를 넘겨 1.4 후퇴로 이어졌다. 2월부터 다시 서울 재수복 작전이 전개됐다. 김포지역은 서울 탈환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자 서해 해안을 지키기 위한 요지였다. 7월까지 김포 곳곳에서 격전이 치러졌다.

6.25 전쟁 당시의 경찰과 의용대 모습(사진출처 김포시사 2011)

전쟁이 남긴 아물지 않는 상처

3년여간의 전쟁에서 지역이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불구자가 되었고 재산 피해도 컸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해병대와 인민군은 김포를 번갈아가며 점령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민간인들은 본의 아니게 이념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했을 때 국군과 경찰은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연맹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인민군도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이른바 반동분자를 색출해 공공연하게 처형했다. 특히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으로 변모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좌와 우를 구분해 서로에게 총을 겨눴다. 불로동 여우재고개 골짜기, 감정동 독자골, 북변터널 부근, 김포초 뒤 골짜기, 걸포동 제방둑 등지에서 민간인 2천여 명이 학살됐다. 또한 김포사람 1천 4백여 명이 납북됐다. 아직도 같은 날 제사를 치르는 가정이 적지 않은 이유다.

전쟁 이후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포구가 대부분 폐쇄됐고 김포, 양곡, 하성, 월곶 등 큰 시장이 전소돼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월곶면에는 북으로 가지 못한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 형성되기도 했다.

6.25 전쟁 때 김포지역을 지나는 부대 행렬(사진출처 김포시사 2011)

'평화시대' 김포의 미래

김포는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남과 북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오면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 서게 될 김포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김포시 평화생태관광의 상징이 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올해 말 개관된다. 월곶면 조강리 끝자락에 위치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한강하구와 서해, 북녘땅을 최근접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공원을 중심으로 이 일대 평화,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묶어 경기권 평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평화경제특구 조성,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 한강문예창고 조성, 평화누리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다. 정전이 아닌 영구적인 평화를 꿈꾸는 김포의 미래다.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만든 공연

김포문화재단 '토요 브런치 콘서트'

모든 시민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데는 문화예술 공연만한 것이 없다. 김포문화재단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5월 15일 토요일, '토요 브런치 콘서트'를 즐기러 김포아트홀에 들렀다.

글 김병혁 시민기자

연주자-관객 무대 위에서 함께 진행

토요 브런치 콘서트는 진행방식이 독특하다. 연주자와 관객이 무대 위에서 함께 즐긴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으나 토요 브런치 콘서트는 다른 공연과 달리 관객과 연주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매회 공연 프로그램에 따라 관객석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 회차의 경우 출연자는 무대 가운데서 공연하고, 관객들은 출연자를 둘러싸고 앉는다. 그야말로 무대 위에서 관객과 출연자가 한 몸이 되는 공연이다. 마치 우리나라 마당놀이와 흡사한 구조다. 관객은 생동감 넘치는 공연에 몰입할 수 있다. 무대 아래 객석에서 볼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토요 브런치 콘서트는 김포아트홀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4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9회 진행된다. 이번 2회 차 공연도 4월 17일 첫 공연에 이어 일찌감치 매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무대 위 관객은 45명으로 제한했지만, 문화재단 관계자도 김포시민들의 호응에 놀랐다.

"첫 공연이 끝나고 시민들께서 주위에 많이 추천하신 거 같아요. 오늘 공연도 예매 시작한 지 15분 만에 매진됐거든요. 많이 놀랐죠. 시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거의 못 보니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듯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앙코르 3곡으로 이어져

공연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이어지고, 입장은 10시 30분부터 시작한다. 관객은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찾았다.

이번 공연주제는 클래식과 재즈가 만난 'CLAZZ'다.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이라니! 주제부터 아주 이색적이다.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김기경과 프랑스 국립음악원 출신 재즈피아니스트 허성우의 열정적 콜라보였다.

공연은 출연자 2명이 진행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거듭될수록 관객들이 주인공이 되어 공연을 주도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 둘러앉아 관객과 출연자가 흥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참 묘한 기분이다. 누가 공연을 하고 누가 관객인지 모를 정도였다. 열정적인 무대는 급기야 앙코르 3곡으로 이어졌다. 공연은 1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20분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겨우 끝났다. 작지만 위대한 콘서트였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시민들은 미소를 머금고 표정 하나하나 밝았다.

행복을 찾아 멀리 갈 필요 없다. 김포에서 가족과 함께 '토요 브런치 콘서트'를 즐겨보자. 공연이 끝난 뒤 주변 사우동 맛집에서 점심 먹고, 식후경으로 장릉 푸른 숲을 걸어 보자. 작은 행복을 누리기에는 금상첨화다.

일자리 연계기관 6월 일정

지역 순회 노동권익 강좌 '김포 무료 노동법 교육'

- **대상** : 김포시민 누구나
- **일정 및 내용**

날짜	주제	장소
6. 15.(화) 19:30	경비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이해	김포 경실련 곳간
6. 22.(화) 16:00	장애인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이해	김포 장애인 야학
6. 27.(일) 14:00	이주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이해	김포 이웃살이
7. 6.(화) 19:30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이해	김포 경실련 곳간
7. 13.(화) 19:30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이해	김포 경실련 곳간

- **문의** : 010-5749-8279, 천주교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새날의집

※ 모든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참여 가능

<김포 일자리센터>

청년 멘토링 특강 실시

- **대상** : 청년층 구직자 수시 모집
- **일정** : 6. 24.(목) 14:00~16:00
- **내용** : 채용전망, 취업전략 관련 특강
- **문의** : 김포일자리센터(996-7615~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물류·생산 ERP & 지게차기능사 양성과정' 교육훈련생 모집

- **기간** : 6. 28.(월) ~ 9. 10.(금) 13:30~17:30
- **모집** : 5. 20.(목) ~ 6. 17.(목)
- **교육**
  - ERP&지게차이론 : 실시간 온라인교육
  - 지게차실기 : 김포중장비자동차정비학원
- **대상** : 특별한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문의** : 996-7607~7611

취업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 기수	교육 일정	교육 시간	접수 기간
9기	6. 9.(수)~6. 11.(금)	9:30~13:30	상시 접수
10기	6. 23.(수)~6.25.(금)	9:30~13:30	

※ 본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비대면(온라인, ZOOM 이용)으로 운영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60세 이하/고용보험 미가입자)
- **내용** :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문의** : 996-7612~7613

생존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가 응답할 때

국가철도망 GTX-D 노선 배제되자 즉각 행동 돌입
촛불·풍선·드라이브챌린지 등 다양한 형태로 투쟁
“지금 확정 못하면 우리 아이가 지옥철 시달릴 것”

글 편집실(K)

지난 4월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기도와 김포시가 건의한 GTX-D 노선이 빠지고 김포~부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시민들은 즉각 정부를 상대로 한 민원 제기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초안 발표 이틀 만인 24일 ‘GTX-D 강남 직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범대위는 26일 출범소식을 공표하고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무렵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도 출범했다. GTX-D 배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김포와 검단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연대는 5월 1일 김포시청사 일대에서 차량 1천여 대를 동원해 드라이브 챌린지 투쟁을 벌였다. 주말에 개인 시간을 들여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는 2035년 김포시와 검단신도시는 각각 76만 명과 33만 명의 인구를 계획 중인 거대도시가 된다”며 GTX-D 강남 직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요일인 5월 8일 저녁에는 장기동 라베니체에서 시민연대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남녀노소 2천여 명이 금빛수로 교각 위에까지 운집해 불을 밝혔다. 시민들은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골드라인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항의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영상에는 ‘서울 직결 노선 고양은 7개 부천은 6개’, ‘死(사)우역’, ‘세 대 보내고 네 대째에 탈 수 있는 3전 4기 고촌역’ 등의 문구가 상영됐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연대 위원장은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위원장으로 불릴지는 꿈에도 몰랐다. GTX-D와 5호선을 지금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나처럼 지옥철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다음 세대에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시민이 라베니체에서 삭발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시민제공 사진)

> “GTX-D와 5호선을 지금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지옥철에 시달릴 것이다. 다음 세대에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해 달라”

시민들은 다음날인 9일 낮에 다시 라베니체에 모였다. 전날보다 더 많은 시민이 풍선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은 골드라인이 안전사고와 감염병 등에 무방비 노출된 점을 지적하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5월 13일에는 푸념하는 시민을 향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조롱성 발언 파문이 일어났다.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과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민들은 5월 15일 저녁에 또 촛불을 들었다. 쌀쌀한 날씨에 빗줄기가 거셌음에도 시민들은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쓴 채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삭발로써 분노를 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인원이 제한되자 주말 시위는 리본달기 형식으로 계속됐다. 시민연대는 28일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응답하라는 시민들의 절규가 이날 광화문 일대에 크게 메아리쳤다.

참여·모집

취업알선형 구직자 연중 모집
대상 김포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방문 신청)
분야 경비, 미화, 단순노무직, 기타 서비스업 등
서류 등본 1부, 증명사진 1장, 간단한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문의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984-0108

2021 김포버스킹 김포버스커 모집
공모 6. 1.(화)~ 6. 11.(금) 18:00까지
선발 1차·서류 및 영상심사, 2차·현장오디션 6. 19.(토) 예정
대상 김포시 거주하는 시민(단체) 누구나
신청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mgkim@gcf.or.kr
문의 김포문화재단 평화기획팀 996-7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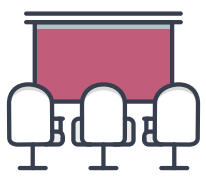
부모 마음플러스 (온라인 심리검사) 안내
일시 6. 14.(월)~6. 17.(목)
대상 관내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40명
내용 부모 양육 스트레스 온라인 검사(K-PSI) 실시 및 결과해석
신청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985-1901(내선 2~7)

제29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김포시 예선
접수 6. 7.(월)~6. 20.(일)
대상 김포시 관내 청소년(초등 3~고등 3, 학교 밖 만 9~18세)
내용 음악(7종), 무용(7종), 사물놀이(2종), 문학(2종)
운영 신청서 접수 → 영상 제출 → 비대면 심사 → 시상
문의 중봉청소년수련관 980-1672

녹색실천 청소년활동 운영
일정 7. 10.(토), 8. 28.(토) 9:00~17:00 / 3~4기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100명
장소 관내 공원 및 하천길 등
내용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활동일지 작성
혜택 1365 연계 봉사활동 2시간 지급
접수 온라인통합접수시스템(www.fgy.or.kr) 접수
문의 양촌청소년문화의집 996-6276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
일정 6. 24.(목) 19:00~21:00
운영 온라인 비대면 진행
내용 자기소개서, 면접 설명회
신청 김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신청
문의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980-1661~6, 1612

교육



1인 방송의 시대 2기 모집
일정 7. 10.(토) 13:00~15:00
모집 6. 21.(월)~선착순 모집
대상 관내 초등 청소년 14명
내용 SNS 방송용 영상촬영 및 편집, 공유활동 등 무료 교육
접수 온라인통합접수시스템(www.fgy.or.kr) 접수
문의 고촌청소년문화의집 997-4246

놀이·미술치료 대상자 모집
일정
- 놀이치료 매주 화, 목, 금(14:00~20:00)
- 미술치료 매주 수(14:00~20:00)

모집 연중
대상 관내 저연령 아동·청소년(7세 이상)
내용 매개체(놀이, 미술)를 활용한 심리상담
비용 회기당 25,000원(1개월분 선불 납부)
※ 법정 한부모가족 및 기초수급대상자 면제, 다자녀 50% 감면
접수·문의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80-1697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청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장소 출생 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지원 출생아 1인당 50만 원(김포시 지역화폐) 지원
문의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과 5186-4181

지원·안내

월곶생활문화센터, 문화가 있는 토요일
대상 김포시민 누구나 선착순 25명 내외
모집 6. 1.(화)~신청 마감 시

일자	시간	프로그램
6. 12.(토)	12:00~16:30	• 예술체험(크리스탈 썬캐쳐)
6. 19.(토)	14:00~16:00	• 공연(인형놀이극-환경) • 예술체험(풍경)
6. 26.(토)	12:00~16:30	• 예술체험(전통무늬 초롱)

문의 월곶생활문화센터 983-2373

방임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지원사업
대상 김포시에 거주하는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및 부모 자녀(상시모집)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지원 상담, 나들이 및 캠프, 가족 일상 컨설팅 등
접수 추천자 or 대상자 전화 접수 → 센터 방문 후 상담 → 사례회의 후 대상가정 선정
문의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6-592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대국민 공개 강좌
일시 6. 25.(금) 15:00~17:00
내용
- 강의 1 사회성이 싹트다(부모와 아이의 마음이 만나다)
- 강의 2 사회성이 꽃피다(가장 소중한건 나라는 존재)

강사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
장소 줌(zoom)으로 진행
접수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문의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998-4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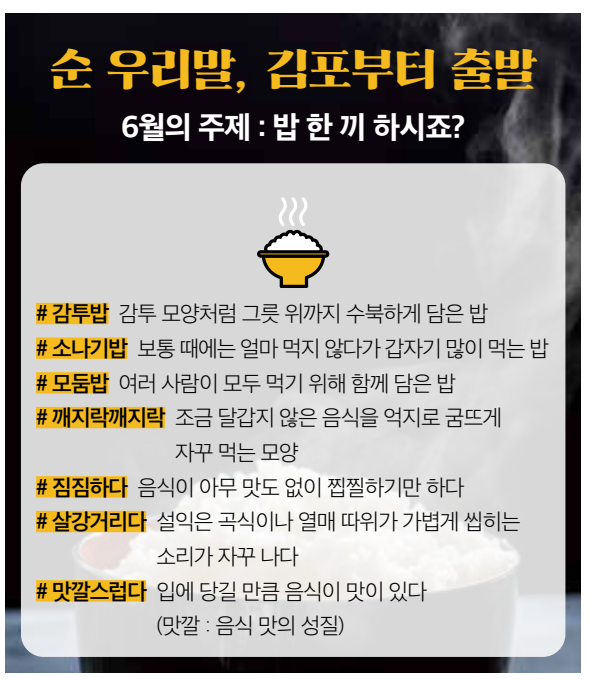
외국인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선거권은 2005. 8. 4. 선거법개정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5. 31.)부터 도입·실시되었습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988-1390



지역이기주의요?

서울 인구유입 1위인 48만 도시에 서울 직결 중전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김포 이야기입니다. 김포에 단 하나 있는 경전철은 혼잡률이 무려 285%입니다. 이마저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2량짜리 경전철입니다. 서울 인근의 인구 7만, 19만, 23만 도시들도 서울 직결 노선이 3개, 4개씩입니다. 인근의 한 도시는 무려 11개의 철도 노선 신설과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도 없는 도시가 제대로 된 걸 요구하는 건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이지 중복해서 추가로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GTX는 서울의 인구 밀집도를 낮추고 인근 수도권 도시에서 서울 중심으로 편리한 출퇴근과 연결을 위한 철도망 계획입니다. 집값 상승은 개발사업 전에 교통망을 우선 구축해놨을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포는 지금 교통 불편 해소와 이런 고통을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시민의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GTX-D는 정부가 발표하고 계획한 당초 GTX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외곽과 도심을 고속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외곽과 외곽을 연결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노선과 중복된다'고 하는데 GTX-A, B, C에 비해 결코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서울 2호선, 9호선의 혼잡률을 낮추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노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사는 수도권에서도 1백만, 2백만 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서울직결 노선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교통혼잡을 분산하는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만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건의한 대책이라도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근시안적 교통망은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김포~부천 노선이어서 '김부선'이라 불렸는데 최근에는 '김용선'이라고들 합니다. 김포에서 강남으로 가는 수요보다 여의도, 용산으로 가는 수요가 더 많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수요는 현재의 교통망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광역철도도 없고 서울시의 버스진입 제한 정책으로 근거리 교통망만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두 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탓에 현재 전국 최악의 지옥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기능적인 역할만 보더라도 '김용선' 직결은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의 열차 운행횟수의 감소로 또 다른 교통 불편을 낳을 것입니다. 평면환승은 김포공항역의 9호선과 공항철도에서 착안됐듯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풀어도 충분히 가능한 대책일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무슨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흘리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매우 안 좋은 시도였습니다. 정부는 GTX-D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고 수도권 전체의 교통혼잡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GTX-D 원안 통과와 서울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을 확정해서 수도권 균형 발전을 완성하고 서부권 국민들의 서러움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독자 퀴즈 Quiz

김포문화재단이 기획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매회 프로그램에 따라 관객석이 변하는 공연의 이름은?
(힌트 : 시민기자가 간다)

독자퀴즈 정답
독자퀴즈 정답과 구독소감 등을 6월 20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뉴스포털 → 김포마루 → 독자이벤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김포소식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김포시의 주요 정책과 상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간 : 6월 5일 ~ 7월 20일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김포마루 8월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자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큐알코드를 스캔해 신청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김포소식신청 → 김포소식 문자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사항

김포마루 우편 구독 및 이벤트에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는 우편이나 상품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숫자로 보는 김포

2021년 4월 기준(전월 대비)

남 241,239 (▲ 725) + **여** 240,480 (▲ 719)

인구	▲ 1,444	481,719명
세대	▲ 930	197,247세대
자동차	▲ 1,022	233,562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2차 고용안전망)

※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유사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 EITC(근로장려금제도)(기획재정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지원내용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50%↓			
Ⅱ유형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무관	무관	취업 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소득요건 없음			
	청년		18~34세	소득요건 없음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문의 김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350)
민간위탁기관 미래고용정보 070-7510-7146(김포사무소)
070-5153-0304(장기사무소)
070-5153-0313(구래사무소)
명은커리어 070-5066-5746
채움HRD 070-5228-0550

일경험프로그램

+ 일경험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직장 적응능력과 직무향상을 지원하며,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 참여 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신청 직전 월말 기준)
-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NGO, 사회적 기업 등

+ 참여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www.work.go.kr/kua

+ 일경험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수준

구분	체험형(직무 체험)체험형	인턴형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대보험 가입)
지원기간	• 최대 30일(휴무일 제외)	• 최대 3개월
일경험 시간	• 1일 4시간 원칙	• 1일 8시간, 1주 30~40시간 내 협의
지원금액	• 참여자: 참여수당 1일 2.1만 원 • 참여기업: 멘토링수당 10만 원	• 참여자: 기업과 임금 협의 • 참여기업: 멘토링수당 10만 원 • 임금 월 최대 182만 원
직무내용	•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 문의 인천·경기북부 강원철원군 ㈜지에스씨넷 파주지점 032-426-1949

www.gimpo.go.kr

2021년 5월 24일부터
김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전화 국번 980에서
5186 으로 변경됩니다.

4개월 간은 기존 번호로도 통화연결!!
전화 이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4개월 간 기존 번호로도 연결되는 착신전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ULL LIFE GIMPO